

■ 지방선거 핫코너

양형일·정동채 '광산을 지역위 결의대회' 중지 요청

양형일(왼쪽)·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민주당 광주광산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응섭 국회의원)가 12일 개최할 '6·2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중지해줄 것을 광주시당과 중앙당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응섭 의원이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보다 사실상



광주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예비후보 측은 "행사 내용이나 현수막, 동영상 상영 등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특정 사조직이 대거 참여해 자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행사 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광주시당과 중앙당에 전달하는 한편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아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이번 행사에 비당원이 동원되거나 특정인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보고 있다.

전갑길 "공평한 전형제도 유도해야"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서울지역 대학이 외국 출신에게 유리한 입학전형 확대를 의도하고 있는 광주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정부는 재정지원 축소,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 대학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전형제도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순천대 약학대 유치' 공로패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0일 순천대로부터 약학대학 유치를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선정된 것은 대학 관계자들이 가장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미려하나마 노력한 저의 노력을 평가해주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인류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세계 보건의료산업계의 시장 규모가 늘어난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남은 천연 자원과 신소재가 풍부한 만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일 "광주공항에 키드존 유치"

이정일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광주 군운비행장과 평동 소 사격장 이전에 대비한 부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 이전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이전 논리에 앞서 부지와 시설 등을 활용, '명품 광산'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 또는 미국 NASA 키드존을 유치해 광산을 대한민국 대표 국제화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 금호타이어 정문에 '천막당사'

장원섭 민주당노동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한나라당 정몽화 후보의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주시민 앞에 금호타이어의 진실 밝히고 지역사회의 공명화를 위해 다음주 초 공개토론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금호타이어 정문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금호타이어 홍보물 10만 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장만채 '도교육감 출마' 총장직 사퇴

장만채 순천대총장은 10일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0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교직원과 학생에게 송구스럽다"며 "변화하는 전남교육의 문화 정착과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거쳐 85년부터 순천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6년 총장에 당선됐다. 장 총장은 지난달 전남지역 80여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자칭 도민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홍영기 "목포에 시민배심원제 도입"

홍영기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와 전남도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 '목포시장 선출을 위한 경선 방법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고 '시민공천 배심원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홍 후보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선거인단 체육관 투표방식'은 짧은 시간에 돈과 조직을 집중할 수 있는 후보에게만 유리하다"면서 "제대로 된 토론과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당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시발전계획' 새로 짠다

구도심 재생·자연생태와의 조화에 초점

공원녹지·도로교통 등 하부계획도 수정

광주시의 도시발전계획이 구도심 재생과 자연생태와의 조화, 문화관광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대폭 수정된다.

광주시는 10일 "때맞춰 올해가 5~10년 단위로 도시공간 구조와 발전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해인데다, 주택종합계획도 처음으로 수립하게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도시발전 관련 계획에는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 330만㎡ 규모의 관광·레저복합타운, 광주시와 장성 인근 5천200만㎡의 광주연구개발특구 등 신규 확정된 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광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광주와 장성·나주·담양·함평 등 인근 전남 시·군도시의 발전방향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제시하는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 광주시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 '2025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각각 5억 900여 만원, 19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급하는 '2025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원·녹지, 도로·교통, 산업·문화 등에 대한 하부계획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해 9억9천만원을 들여 상반기 내 '202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올해 첫 수립되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7억4천800여 만원이 투입되며, 2020년까지 지역 내 주택

수요량 및 공급 방안, 구도심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이 포함됐다.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2020 광주 경관기본계획', '광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등도 올해 새로 수립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수립되는 계획에 모두 100여 명의 예산이 투입되며, 그만큼 계획의 변경 및 수정의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 및 주변의 여건이 과거 10년 전과 달라지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나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 등 새로운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클린디젤자동차부품 육성 국회 포럼. 박광태(가운데) 광주시장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에 참석해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앞줄 맨 오른쪽), 김재균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조성환이사로부터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클린디젤자동차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마리아 향만 민자유치 나선다

전남도가 마리아향만으로 지정된 도내 7개 향을 해양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전남도는 10일 목포시 요트클럽하우스에서 '마리아(Marina) 향만 개발을 위한 시·군 협의회'를 개최하고 마리아향만으로 지정된 도내 향만을 해양레저 스포츠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마리아 향만으로 지정된 도내 향만은 모두 7곳으로, ▲함평(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013-32일대 4만㎡) ▲목포(목포시 산정동 1452번지 일대 4만㎡) ▲화원(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374-2일대(13만9천633㎡) ▲광복(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 85-7 일대 4만㎡) 등 서남권 4곳과 ▲완도(완도군 완도를 북방파제 704번지 일대 4만㎡) ▲남열(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12-3 일대 4만㎡) ▲소호(여수시 소호동 1181-2 일대 12만㎡) 등 전남권 3곳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외교부 "韓-EU FTA 4월말까지 정식서명"

외교통상부는 10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을 4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과 내주 초 한국과 EU의 FTA 수석대표와 통상장관 간에 회담이 열린다"며 "4월 말까지 정식서명을 추진하는 문제 등

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능하면 이번 회담에서 정식서명을 위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정할 생각이지만 EU 집행위원회 일정을 확정할 수 없어서 1~2 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2~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와 회담을 하는 데

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카렐 데 휘흐트 신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통상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EU FTA 정식서명을 위한 준비 사항을 협의하고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및 관세감축방식 조정 등 한-EU FTA 가서명분에 대한 수정 사항을 합의 의사록 형식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University' (광주대학교) featuring a stylized tree graphic and text promoting the university's location and facilities. The text includes '광주대학교' and '광주광역시'.